

# ‘영기에서 여래로 다시 영기로’ 순환원리 불상에 담겨

## 특별기고

### 불상의 영기화생에 대해

우리는 흔히 여래나 보살이 연꽃에서 화생하여 연화화생(蓮花化生)이라는 말을 써왔다. 경전에도 이미 <아미타경>에 그런 용어가 나온다. 연꽃은 진흙물에서 자라지만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는 순수함을 상징하나, 실은 물을 상징하므로 만물생성의 근원을 뜻한다. 그래서 여래나 보살이 연꽃에서 화보자 못하고 지나쳐왔다. 물론 연꽃은 물에서 자라므로 부조상(浮彫像)에 때때로 연꽃 밑에 물결이 표현돼 있다. 그런데 물과 연꽃 사이에 ‘플 같은 것’이나 ‘제3영기쌍’ 등이 있어서 거기에서 연꽃이 자라나고 있음을 발견했다. 즉 물로부터 무한한 번주의 여러 가지 추상적, 구상적 영기문자가 역동적으로 발산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연꽃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넓게 보면 연꽃도 영기문 가운데 하나이다. 말이 연꽃이지 자세히 보면 그린 실체로 그린 연꽃은 없으며 연꽃모양 영기문임을 알게 된다. 즉 연꽃모양에 여러 가지 영기문을 넣어서 강력히 영화(靈化)한다. 그 수많은 꽃들 가운데 연꽃만이 반구형(半球形) 씨방을 지니고 있기에 여래가 없기에 안성맞춤이어서 애용할 뿐이다.

우리가 항상 내세는 불상대좌의 연꽃은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그대로의 형태가 아니고, 다양한 영기문을 첨가하여 연꽃을 강력히 영화(靈化) 혹은 聖化 혹은 淨化라 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장 강력한 영기문(靈氣文)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변에 전시된 작품들에서 연꽃대좌의 다양한 형태를 모두 살펴보면 그 연꽃의 실체를 알 수 있다. 즉 회화에서는 연꽃 밑에 추상적인 영기문을 두기도 하지만, 조각에서는 그러기 어려우므로 연꽃잎 안에 여러 가지 영기문을 넣는다. 그러한 연꽃잎이 통일신라 초기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해가는지 광배와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월지 출토 금동관 삼존불(통일신라 7세기 말, 사진 1)의 대좌를 보면 연꽃잎 안에 화려한 제3영기쌍의 여러 가지 형태를 넣어 강력히 영화시켰으므로 연꽃모양 영기문이라 불러야 좋을 것이다. 채색 분석해 보면 그 다양한 영기문을 찾아볼 수 있다. 광배는 투조로 제1영기쌍과 제3영기쌍 무늬로 장식돼 있다. 동화사 탑 발견 사리장엄구 금동관(사진 2)에 압출하여 나타낸 불상을 보면, 연꽃 대좌 밑에 덩굴모양 영기문이 있다. 가장 근원적인 것이므로 연꽃 보다 더 중요한 조형이다. 물은 생략하고 영기문 줄기가 셋으로 갈라져서 삼존불이 탄생하고 있다. 대좌도 갖가지 영기문으로 강력히 영화시켜 여래를 탄생시키려 한다. 광배에도 영화된 연꽃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불꽃같은 영기문이 발산하고 있다. 심지어 천개도 구름모양 영기문으로 구성돼 있고 거기서 제3영기쌍이 발산하고 있다. 황복사 탑 발견 금제 여래좌상의 대좌와 광배를 살펴보기로 하자. 대좌의 연꽃



1-1 월지 출토 금동관불, 통일신라 7세기 말. 연화대좌에 제3영기쌍 무늬를 넣어 강력히 영화시켰다. 광배에도 제1영기쌍과 제3영기쌍 덩굴무늬 등이 보인다.

1-2 연화대좌를 채색분석한 것.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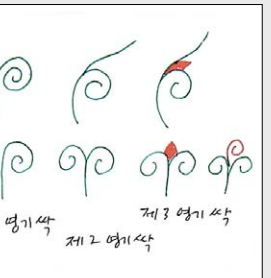
4 금동불 연화대좌 끝이 뾰족하게 솟아 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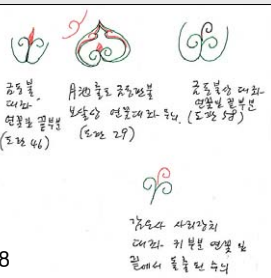
5 대좌의 연꽃 끝이 제3영기쌍 무늬로 크게 강조돼 솟아 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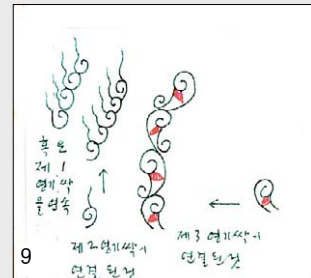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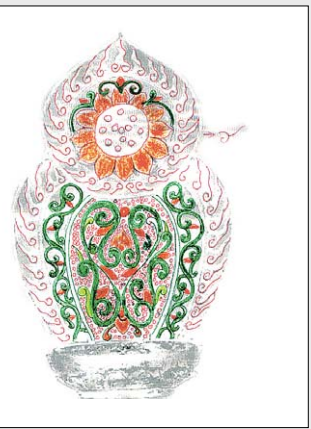
6 연꽃잎 끝에서 제3영기쌍이 발산.



7 필자가 발견한 영기문자의 기본 원리.



8 연화대좌에 넣은 여러 영기문들.



9 영기문으로 이루어진 광배무늬.

에는 무늬 대신 흰차게 영기를 불어 넣어 일마다 두 개의 타원체가 생기고 있다. 종래는 자엽(子葉)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연꽃은 그런 형태는 없는 잘못된 일반 미술용어임을 알 수 있다. 광배를 보면, 제1영기쌍과 다양한 제3영기쌍 무늬로 화려하게 광배를 장식하고 있다. 부처의 몸에서 발산하는 아름답고 역동적인 영기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것을 아무 의미도 없는 당초문이나 화염문이라 부르고 있으니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더구나 아직도 일본 식민지문화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연화대좌의 끝을 어떻게 영화시키는지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연꽃잎의 끝이 흰차게 솟구쳐 있다(사진 4) 그런데 차츰 그 솟구치는 정도가 심하여 길게 뻗치게 하되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연꽃잎을 한층 더 역동적인

형태를 띠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길게 솟구치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연꽃잎 끝에서 여러 형태의 제3영기쌍이 발산하는 형태를 띠기 시작한다(사진 5·6) 강력히 영화된 연꽃에서 영기가 발산하는 형국이며 여래를 탄생시킬 준비를 한다. 우리 학계에서는 ‘귀꽃’이란 아무 의미 없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연꽃을 영화시키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연꽃잎에 영기를 불어넣어 탄력 있는 타원체를 하나나 둘을 넣는 것이고, 둘째는 연꽃잎에 갖가지 영기문을 넣는 방법이고, 셋째는 연꽃잎 끝부분에서 여러 가지 제3영기쌍을 발산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그 제3영기쌍에서 연꽃이 생겨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화생한 불상에서 발산하는 영기를 나타낸 광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히 그 상징적

의미를 밝힌 적이 없다. 그런데 광배로부터 다시 화불(佛)이 탄생한다. 화불 역시 연꽃 위에 앉아 있으니 연화화생이라 불러왔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그 배후의 영기문에서 연꽃위에 앉은 화불이 영기화생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연화화생한 화불이 아니고 영기화생한 화불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대좌-불상-광배’라는 구성은, ‘영기에서 여래가 화생하고, 화생한 여래로부터 다시 영기를 발산하며, 그 영기에서 무한한 여래가 화생하는 순환의 원리’를 거대한 조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불상에서 필자가 발견한 ‘영기의 표현원리’이다. 모든 영기문이 이 원리에 의해 전개하고 있으며, 불상도 같은 원리에 의해 전개하고 있다. 왜 그런가. 불상이 바로 영기의 집적(集積)이기 때문이다. 불상의 모든 것이 다양한 모양의 영기문의 집적체임을 발견한 것이다. 지금까지

지 불상을 탄생시킨 대좌의 영기문과 불상에서 발산하는 광배의 영기문을 통일 초부터 말기까지 간단히 그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사진 7, 8, 9는 필자가 고구려 벽화에서 추출한 영기문 성립의 기본 원리이다.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불화나 불상의 표현원리를 알게 된 것이다. 불화와 불상에서 직접 찾은 것이 아니다. 불상의 얼굴, 나발, 몸, 보발, 법의, 천의, 영락, 보관 등 일체가 영기의 집적임을 불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불상은 영기의 집적체이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전체가 영적(靈的)인 형태들로 구성된 것이다. 여래를 32상80종 호를 갖춘 완전한 모습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금강경>의 말씀이 이를 가리킨 것일지도 모른다. 이 글은 종래의 관념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앞으로 논문으로 완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강우량 일화한국미술연구원장

## 화제의 불화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 할 불멸의 수호신

##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

지내는 가정마다 평생 부귀 영화와 건강 장수하게 축원불공 마쳐!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불력!

- 여의주를 든 관음도는 가정번영을 약속!
- 여의주를 든 관음도는 사업성공을 약속!



규격 : 가로67cm 세로85cm

### 가정과 사업장의 재난과 액운을 쫓고 번영 보는순간 감탄 거실과 사업장에 걸면 폭격

「세존이시여 무순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권세와 명예를 얻을 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칠귀의 액란에서 벗어나 건강장수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리게 한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닌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에나 잘 응할수 있다.」

<관세음보문품경에서>

속명만족제희구(速令滿足諸希求)<불경>  
저희들의 온갖소원 하루속히 이루어고<해설>  
수지심시광명당(受持身是光明幢)<불경>  
법을모신 이 내몸은 큰 광명의 깃발이요<해설>  
수지심시신통장(受持心是神通藏)<불경>  
법을지닌 이 내 마음 신통력의 곳집이라<해설>  
소원중심심원만(所願從心悉圓滿)<불경>  
원하는 말 마음대로 모두다 이루어라<해설>  
(천수경 경의 중에서)

### 여의주를 든 백의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백의 관세음보살의 밝은모습으로 무명의 어둠에 있는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세상사는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병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으로 부귀영화와 명예까지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조선시대 그러던것으로 우리나라 한적밖에 없는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造화백계서 기도속에 불력과 영험으로 재현해 판화한 영험의 명작으로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백의 수월관음도를 보는순간 누구나 감탄을 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단최고급표구 액자와 100% 천연코튼판화지에 판화된 백의 수월관음도는 수백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게 베르린까지 처리한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승서와 가보로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란이 있다. 전화로 신중하시면 특급택배로 특별선물 보궁여의주와 함께 안전하게 보내드리며 받으시면 삼배하면서 소원기도 한디을 소장인란에 서명하시고 거실 또는 사업장에 걸면됩니다. 가격245,000원

문의전화:(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문의환영)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불가능)  
http://club.cjworld.com/kapilla

### 보궁여의주 특별선물

여의주를 든 관음도와 인연이된분께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구입하시는 분자님께 한시적으로 보궁여의주 특별히 드립니다. 각종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 천룡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서 떨어져 변한것이라고 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 만 있어도 독이 해질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누구와 경쟁을 해도 승리하며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공공에도 있고 여의류공을 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를 이루어주시게 하는 관세음 부처님의 약속의 구슬입니다. 바다속 천연 녹색 원석으로 불교에서는 일명 공공석이라하며 집안의 가보로 수험생이 있는 집에는 시험날 가방속에 넣고 시험장에 가면 지혜의 영험의 나타낸다는 영험의 구슬입니다. 불가에서는 여의주를 영험의 보물로 인정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법구입니다.